

[TOKYO] REAL TIMESU

ABROAD

2011 / 05 / 28

공혜정

일본 현지 지진피해의 보고

5. 20 ~ 25 SNAC(<http://snac.in/>)



피해지 전시회 풍경

2011

년 3월 11일에 벌어진 후쿠시마 대지진 후 벌써 2달 남짓 흘렀다. 일본 미술계가 입은 피해 역시 막대하다. 취소된 문화행사만 해도 165건, 연기된 것은 345건에 달한다. 쓰나미에 의해 작품 및 시설이 손상된 미술관도 한 두 곳이 아니다. 후쿠시마 현립 미술관은 조각작품의 일부가 파손되었고, 그 밖에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에 소재한 미술관의 대부분이 전시 관련 설비가 부서지고 천장이 내려앉는 등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다.

A photograph of a dog sitting on a bed in a cluttered room, framed by a dark, distressed border. The dog is a medium-sized, light brown or tan breed, possibly a Weimaraner, sitting upright on a bed with a patterned blanket. The room is dimly lit, with a window visible in the background showing a bright outdoor scene. The room appears cluttered with various items, including a white plastic bag on the left and a wooden chair or frame on the right. The photograph is mounted on a dark, textured surface, possibly a wall or a display board, and is surrounded by a dark, irregular border that looks like old tape or a frame. The overall image has a vintage, slightly grainy quality.

2 / 3

응원인 셈이다. 점점 난해해지고 심오해지는 여타 미술에 반해 Chim↑Pom의 작품은 단순한 행동 포착의 꾸밈없는 표현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발신한다.

Chim↑Pom 2005년 8월 에리(エリィ), 우조 류타(うじょりゅう)와 야스타카(やस्ताか) 등 6명으로 결성된 예술가 집단. 2010년 아시아 아트 어워드(A3)에서 일본작가 대표로 선정. <Drink Sake Alone> (샌프란시스코 Lisa Dent Gallery, 2005) 참여를 계기로 <-KITA!! Japanese Artists Meet Indonesia> (자카르타 Jogja National Museum, 2008), <A Blow to the Everyday> (홍콩 Oasage Kwun Tong, 2009) 등 다수의 해외 단체전 참여.